

“탈핵 시대 환영... 원전 폐쇄 안전이 가장 중요”

대통령 탈핵 선언 지역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설계수명연장 불허,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를 골자로 한 탈핵선언을 한데 대해 지역주민, 지역 환경단체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년), 지난해 경주 대지진을 거치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대로 “대한민국은 탈핵시대로 간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영광에서 6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 중인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한빛원전) 측은 “올 것이 왔다”며 적극적인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한수원은 공기업인 만큼 정부 방침에 적극 따를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환경단체, 지역주민 “환영”=환경단

주민 동의없이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고 건설 안돼 방재 대책 서둘러 마련하고 노후 원전 안전점검 필요 한빛원전 “올 것이 왔다...정부 방침 적극 따르겠다”

체와 영광 주민들은 환영 일색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부에 대한 주문과 바람이 적지 않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문 대통령의 발표는 지난 40년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중단하고 탈핵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감격스럽다”고 밝혔다. 단체는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들을 정부가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시행방안까지 내놓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원전 건설과 가동으로 피해를 입어왔던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대책도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경희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 국

장은 “대통령의 탈핵 선언은 환영한다”면서도 “영광 한빛원전 내에 추진 중인 사용후 핵연료(폐연료봉·타고남은 연료봉) 임시저장고 건설 계획은 주민 동의없이 안 된다. 원전 안전성 확보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하영 한빛원전민간감시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대통령의 탈핵선언을 대단히 환영한다. 한빛 1, 2호기의 경우 미국에서 일괄수주방식으로 들어온 것이어서 고장 사고가 많아 항상 불안했다”면서 “설계수명대로 원전이 폐로(폐쇄) 절차를 밟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설계수명 만료와 동시에 연장 없이 원전 폐쇄 절차를 밟을 경우 지역 경제 타격 여론과 관련해서도 “안

전”이 우선이다. 경제적 이익은 포기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영광에 한빛 1~6호기까지 6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 중이며, 발전량에 따라 매년 450억원 가량의 원전세(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영광군과 전남도에 내고 있다.

◇원전 측은 “올 것이 왔다”, 전문가 “방재대책 수립해야”=한빛원전 측은 “올 것이 왔다”며 침울한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를 공약해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지만 이날 기념사에 담긴 대통령의 메시지가 분명하고도 매우 구체적이어서다.

원전 측은 특히 “수명 만료된 원전을 연장해 재가동하는 것은 선령을 연장해 운행한 세월호와 같다”, “지난 정부 동안 원전 사고를 은폐하는 경우가 있었다”, “원전 안전성 확보는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다가올 정

부의 후속 조치를 주시하는 모습이다.

그러면서도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은 공기업이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 정부 방침에 적극 뒷받침하고 따르겠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자력전문가들에게선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의 원자력발전을 위해 고생한 기술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탈원전과 함께 안전성 강화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부분을 특히 눈여겨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일부 원자력전문가들은 “현재 무방비 상태인 방재대책 보강의 시급성을 언급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정운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원전의 불안은 미지의 불안이며,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중대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중대사고에 따른 방재대책을 서둘러 정확히 수립하고 노후화된 국내 원전 설비에 대한 객관적인 안전점검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유령회사 19개 만들어 대포통장 대량 유통

광주지검, 조폭 등 15명 적발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지난 5~6월 생활고를 겪는 미취업 청년들을 모집해 이들 명의로 유령법인 19개를 설립, 법인 대포통장 71개를 개설·유통시킨 조직폭력배와 명의 대여자 등 15명을 붙잡아 6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포통장 개설·유통조직 총책인 조직폭력배 A(28)씨 등 4명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집한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19개의 유령법인을 설립, 해당 법인 명의의 71개 대포통장을 개설해 팔아넘긴 혐의(공정중립위원회법기재 및 행사 등)다.

B(28)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A씨 등을 통해 17회에 걸쳐 개당 120

만~130만원에 대포통장 39개를 넘겨받아 되팔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다.

C(31)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 까지 A씨 등으로부터 매입한 대포통장을 이용, 1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2개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를 받고 있다.

D(24)씨 등 9명은 A씨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신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한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D씨 등은 취업 준비생이거나 미취업 청년, 임시판매직원 등 젊은층으로 생활고 탓에 유혹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친구와 지인의 소개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A씨 등으로부터 120만~130만원을 받았다.

이들 명의로 만들어진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1개당 200만~300만원에 거래됐다. 통장 판매 대금은 1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새벽 일 나가던 70대 노인

뺑소니 차량에 치어 숨져

19일 오전 6시에 광주시 광산구 송정사 랑병원 앞 왕복 4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78)씨가 달려오던 차량에 치어 숨졌다. A씨는 당시 자전거를 타고 파란불로 변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치고 달아난 짙은 회색 코란도 승용차 운전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침에 공사현장(목수)에 나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지점은 직선구간으로, 뺑소니 사고 원인이 과속인지, 음주운전인지 여부는 용의자 신병확보 후 조사를 거쳐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안전운행으로 행복한 광주 만드자” 19일 광주 북구 일곡동 교통문화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교통사고 감축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위원회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친절과 안전운행으로 행복한 광주를 만드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혜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북부경찰, 보이스피싱 중국인 끈질긴 추적 끝 붙잡아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훔쳐 달아난 20대 중국인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혔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광주→부산→김해→전주까지 무려 740km를 추적했다. 광주북부경찰은 보이스피싱으로 1억 6700만원을 가로챈 혐의(절도 등)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A(29)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25분경 광주시 북구 임동의 B(여·81)씨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보관된 현금 2200만원을 훔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1억67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인출책과 절도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나이가 많은 노인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은행직원이 돈을 가로챈다”며 은행에 맡겨둔 예금을 찾아 집에 보관하도록 한 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안전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해 돈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단기(90일) 비자로 입국해 경남 김해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가 비자 기간이 만료되자 달아나 5년 여 동안 불법체류자로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광주에서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훔친 뒤 택시와 고속버스 등을 이용해 부산으로, 부산에서 경남 김해로, 김해에서 전주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백반가루가 필로폰 둔갑 가짜마약 판매 2명 구속 구매자는 불구속 입건

광주광산경찰은 스마트폰 채팅앱에 마약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가짜마약을 판 혐의(사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2)씨와 B(23)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에게 가짜마약을 사들인 30대 구매자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3일 새벽 2시에 광주 광산구의 한 거리에서 백반가루(황산알루미늄클로라이드) 10g을 필로폰으로 속여 팔아 28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일당은 스마트폰 채팅앱에 마약 관련 언어를 사용해 필로폰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 글을 올려 거래했으나, 구매자가 마음을 비워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그동안 실제 마약 거래 없이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웠다. 가짜마약을 거래했음에도 구매자에게 사기 혐의만 적용했다.

그러나 지난 3일부터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마약류 판매를 광고하거나 제조방법을 게시한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폐수 배출 화물선 한달 추적 검거

○여수 앞바다를 오염시킨 뒤 외국으로 출항한 화물선 이 한 달만에 걸린 해경의 끈질긴 추적 끝에 달미.

○19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1977년 화물선 Q호(파나마사적)는 지난달 17일 오전 9시24분께 여수시 오동도 해상에서 윤활유 등의 기름과 물이 섞인 채 배 밑바닥에 고여 있는 선저폐수 780t를 무단 배출하고 중국으로 도망했다는 것.

○해경은 여수항만VTS와 육군 레이더 기지의 자료를 협조받아 사고 현장을 향해한 선박 7척을 선정해 한 달간 전국에 입항한 선박을 찾아가 시료를 채취, 사고현장에서 수습한 오염물질과 일치 여부를 확인해 Q호의 기관장 C(48)씨를 입건했는데 해경 관계자는 “중국국적의 기관장 C씨는 해양환경관리법 22조 1항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풍암동 중심상가

일반물건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 17억

치평동 중심상가

일반물건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3억

【법원 경매/공매】

토지	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 서창동 서창치안센터 인근 토지 90평 감평가 74,000,000 최저가 52,000,000 나주시 남평읍 대교리 남평읍인근 토지 276평 감평가 83,000,000 나주시 죽림동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454평 감평가 287,000,000 최저가 287,000,000 나주 남평읍 교촌리 도시지역 생산녹지 대로점 토지 1182평 감평가 715,000,000 최저가 501,000,000 나주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구 토지 10399평 감평가 2,678,000,000 최저가 2,678,000,000 북구 삼각동 농지 도시계획시설도로 점 토지 210 감평가 295,000,000 최저가 295,000,000 고흥 풍양면 매곡리 바닷가인근 대로점 학교부지 토지 1006평 감평가 58,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성 서삼면 송현리 내연마을인근 계획관리 자연취락지구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감평가 938,000,000 최저가 526,000,000 나주 문평면 옥당리 문평산업단지인근 계획관리 토지 1416평 건물484평 감평가 320,000,000 최저가 224,000,000

근린시설

- 서구 쌍촌동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사무실 8m도로점
토지 168평 건물 86평 감평가 493,000,000 최저가 493,000,000
- 남구 송화동 광주대 인근
토지 138평 건물 492평 감평가 1,227,000,000 최저가 1,227,000,000
- 광산구 수완동 자연녹지 자연취락지구
토지 136평 건물 30평 감평가 239,000,000 최저가 239,000,000
- 곡성군 오곡면 미산리 종교시설
토지 1575평 건물 183평 감평가 1,201,000,000 최저가 841,000,000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인근
토지 128평 건물 251평 감평가 885,000,000 최저가 619,000,000
- 화순 도곡면 천암리 호텔
토지 978평 건물 1295평 감평가 3,787,000,000 최저가 993,000,000
- 동구 충장로5가
토지 65평 건물 감평가 436,000,000 최저가 218,000,000

일반물건

- 북구 운암동 운암동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19층
건물 29평 매매가 63,000,000
- 서구 치평동 근린시설 현재 상업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 광산구 비아동 아파트자리
토지 약 2000평 매매가 평당 280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